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보도자료

| | | | |
|---|---|---|---|
| **제공일자** | 2026. 11. 26.(목) | **사진 · 영상** | 사진(o), 영상(×) |
| **보도일자** |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 | |
| **담당부서** | 행정복지전문위원 | **담당자** | 박용민 전문위원(044-300-7440)<br>김빛나 주무관(044-300-7443) |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7년도 본예산안 첫 심사 돌입

- 26일 기획조정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 시작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제110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첫날인 이날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대변인 소관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박범종 위원은 청년 행정인턴 사업과 관련해 “법정 의무사업이 아닌 만큼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행정보조나 공직 체험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타 시도 기업연계형 인턴십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 직무 경험과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운영 체계 개선을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선정되는 사업들을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과 제목만 다를 뿐 추진 방식

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각 부서나 의회 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일반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사업 공모에 그치지 말고, 시민참여예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하고 차별화된 목적을 분명히 세워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과 지방채 상환 부담 등 시 재정 건전성 전반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 실·국의 신규 사업이 증가하고 기금 회수 요구까지 겹칠 경우 기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기금·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과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해정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전문인력 채용 취지에 걸맞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강 위원은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사업비마저 행사·홍보 위주로 편성돼, 기존처럼 세미나·홍보 중심의 사업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둔 만큼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센터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숙 위원은 무료법률상담관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6년 기준 예약 대기가 평균 1개월 이상인데도 상담실 운영을 주 3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하면 시민 접근성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2년간의 상담 실적과 대기 수요를 살펴,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7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